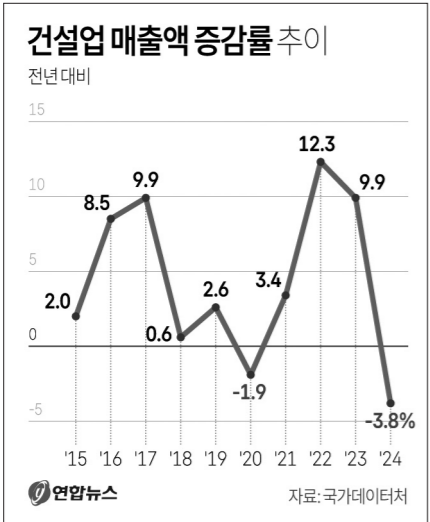


작년 건설업 매출액 19조 감소…25년만에 최대폭



■ 국가데이터처 2024년 건설업 조사

3.8% 감소한 487조…기업체 수는 늘어

종사자 176만명 전년비 5만명 이상 감소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로 4년만이다. 감소 폭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11.1%) 이후로 가장 크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3.8% (19조 원) 감소한 487조7000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매출액은 311조 4000억 원으로 5.3% (17조5000억 원) 감

소, 전문직별 공사업은 176조 3000억 원으로 0.9% (1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해외건설 매출은 48조4000억 원으로 17.5% (7조1000억 원) 급증했지만, 국내 건설 매출이 439조3000억 원으로 5.6% (26조1000억 원) 줄었다. 건설업 매출은 2023년 500조 원 선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뒷걸음질치면서 다시 400조 원대로 밀려났다. 매출 감소는 이례적이다. 외환위기 후폭풍 속에 1998년(-12.9%)과 1999년(-11.1%)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후로 20

년간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8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도 6.9% 감소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는 지난해 8만9101개로 전년 (8만7891개) 보다 1.4% (1210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24개), 세종(-69개), 광주(-52개), 제주(-34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기업체 수가 늘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75만9000명으로 전년 (181만명) 보다 2.8% (5만2000명) 줄었다.

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은 88만 8000명, 기술직은 48만8000명, 사무직·기타는 22만3000명, 기능직은 15만9000명이다. 그밖에 건설비용은 477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12조8000억 원), 건설업 부가가치는 143조2000억 원으로 5.2% (7조9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부가가치는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영업이익, 납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지역 제조업·건설투자 ‘뒤틀림’

소비·물가·고용 지표는 개선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부진한 반면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이었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생산은 기타 기계·장비(-39.9%), 고무·플라스틱(-49.3%) 등이 줄면서 부진했다. 수출은 전 기장비·전자부품(53.2%), 자동차 등 기계류(5.0%)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했고 수입은 전기장비·전자부품(40.3%)에 힘입어 28.3%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5.1%), 대형마트(6.3%)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

비 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투자는 공업용(-61.6%), 상업용(-81.7%)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1만2000명 줄었으나 임금근로자가 3만8000명 늘며 전년 동월 보다 2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전남의 실물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2%), 기타운송장비(-22.2%)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화학공업제품(-17.2%), 철강금속(-10.7%)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고, 수입

은 농·수·광산물(-4.7%)을 중심으로 3.5% 줄었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주거용(133.0%) 증가했으나 공업용(-51.2%)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명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가 1만3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1월 기준)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3%, 2.6% 올랐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박운영 전 KT 사장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운영 전 KT 기업부부장(사장·사진)이 확정됐다. KT 이사회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실터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

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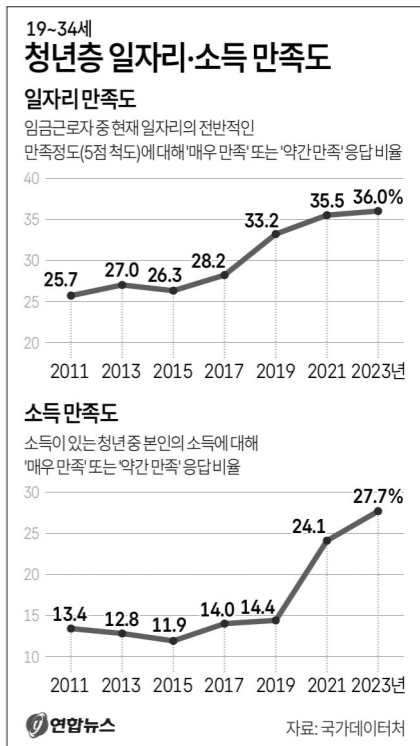
연합뉴스

청년 10명 중 3명 ‘번아웃’…최대 고민은 ‘진로’

여성·대졸자 비율 높아…삶 만족도 6.50점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 비율은 2022년 33.9%에서 지난해 32.2%로 2년 만에 1.7%p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33.3%로 상승했다. 지난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 보다 7.6%p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 고졸 이하 청년(28.2%) 등이 었다.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았고, ‘업무과중(18.4%)’,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이었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년층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대인 신뢰도는 20대(19~29세)와 30대(30~39세) 모두 74.8%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각각 53.2%, 54.7%로



약 20%p 하락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크게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청년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0점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의 삶의 만족도(2021~2023년 평균)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제조기업 70% 영업익 달성 난항…“실효성 있는 지원을”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간담회

광주상의, 상속공제 등 논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광주상의 대회 의실에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제25대 의원 및 지역 상공인,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부 관련 예로사항을 전달하고 국제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상원 회장은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혁신 성장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광주상의 대회의회에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건의해준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가 제공됐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의 생존과 미

래를 고민하는 시점에 가문의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세정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쏟아졌다.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비 비롯해 영세 중소기업 법인에 중간예납 면제 기준 상향, 탄소중립 기업을 위한 ESG 세정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6건의 건의가 제기됐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두 기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격식을 걷어낸 ‘도시락 오찬’으로 머리를 맞대 눈길을 끌었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간소화해 소통의 밀도를 높은 한상원 회장과 김학선 청장은 간담회 후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취업연계 교육 ‘호평’ 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과정 평균 4.7~5.0점 기록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AI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이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5점 만점 기준 4.7점~5.0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하반기 최근 수료가 완료된 AI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과정은 6개월간 운영되며 비전공자도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전반을 이해하고 실무 프로젝트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기초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덕분에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 통해 AI 이해도와 코딩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강사진의 밀착 지도와 수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학습 관리, 취업 연계 지원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특히 팀 프로젝트 기반 교육 방식은 협업 경험과 역할 분담, 실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를 통해 훈련생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20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 유통이 늘어나며 따라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일반음식점과 김치 제조·판매업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0건 가운데 거짓 표시가 12건, 원산지 미표시가 8건으로 나타났

다.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강원도산 배추를 해남산으로 허위 표시한 영농조합법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한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남용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김장철에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특히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3@gwangnam.co.kr

광주RISE센터, 사업 중간점검·컨설팅

광주RISE센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5년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중간점검과 컨설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RISE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사업 도입 첫해로, 광주지역에서는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RISE센터, 참여 대학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

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점검은 광주RISE센터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17개 대학이 수행 중인 141개 과제, 총 826억원 규모의 사업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학별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컨소시엄 취지에 부합한 참여 대학 간 과제 연계 및 협력 여부 △성과 달성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으로, RISE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면 컨설팅에서는 중앙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대학의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